

LG생활건강, UV차단지수 연구발표

한국형 UV차단제 개발목표 ... 한국인 3000명 대상 국책연구사업 추진

LG생활건강(대표 조명재)이 2002년 2월 6-8일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제 6차 International Society of Cosmetic Dermatology (ISCD) 모임에서 한국의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개발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Nutri-Cosme-Ceuticals, A Challenge for the future 부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ISCD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피부, 헤어, 네일, 점막 등에 대한 최신의 정보와 피부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혁신적인 화장품과 의약품의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들로 총 100여편의 구두 및 포스터가 발표됐고, 8개의 Session마다 30분 이상의 토론시간과 Workshop이 마련돼 학술적인 의미가 큰 심포지엄이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의 민혜정 연구원은 1997-99년 LG화학이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대와 연세대 의과대학 및 5개 화장품 생산기업이 참여해 국책과제로 실시됐던 한국의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Access to the SPF testing method for the Korean Skin」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며 외국의 시험법과 차별성이 있으면서 방법적 연계성을 갖는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의 개발을 위해 실시됐던 한국의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개발과 관련해 3000여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한국인의 광 피부타입 연구, 광 피부타입에 따른 한국인의 최소 홍반량 연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개발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자외선량을 일반인에게 공지하여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의 기준제시를 목적으로 실시됐던 한국의 지역별, 계절별 지표 자외선량 등에 관한 연구결과이다.

ISCD는 Dermatologists, Cosmetic biologists와 Chemists들로 구성된 비영리 협회로 1982년 로마에서 창립됐으며 Cosmetic Dermatology와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5개의 국제 학회를 주관하고 있다.

또 피부의 생리·생물학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저명한 학자,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피부과 의사, 부인과의사, 식이 요법학 의사 등 다양한 계층이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화학저널 BioChem 담당 김경수 기자>

< Chemical Daily News 2002/ 02/ 25 >